

선순환적 교육기부 시스템 구축

전북대, 전라중 등 찾아 교육기부 모델학교 현판식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센터장 박병기)가 교육기부 사업 중 하나인 '모델학교'에 선정된 전주 전라중학교와 장흥 관산초등학교에서 현판식을 갖고, 교육기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교육기부 모델학교'는 지역사회 교육기부 자원을 초·중등 교육에 활용해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선순환적 교육기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2일 센터에 따르면 지난 8일과 20일 전라중과 관산초를 찾아 교육기부 모델학교를 인증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특히 관산초에서는 현판식 이후 협약을 맺은 다종이연구소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예

체험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전라중 권희숙 교장은 "내년에도 모델학교가 이어져 더욱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산초 전미 교장은 "교육기부 모델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기 센터장은 "이번 교육기부 모델학교를 통해 전라·제주권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교육기부 지역센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가 교육기부 사업 중 하나인 '모델학교'에 선정된 전주 전라중학교 등에서 현판식을 갖고, 교육기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 전라제주권 교육기부 지역센터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교육기부 지역센터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9월 인권 아카데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월 인권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 오후 2시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에서 이뤄지는 9월 인권아카데미는 건국대 교수이자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인 손석춘 교수를 초대해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를 주제로 강의가 펼쳐진다.

이에 따르면 손석춘 교수는 전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 언론학자로, 현직 기자 시절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인 1위로 꼽혔고, 참여연대가 시민운동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희망을 주는 언론인' 1위에도 선정된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9월 인권 아카데미 주제로 혐오와 차별을 선정할 이유에 대해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특정 대상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됐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갖는 '평화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인권 아카데미는 다양한 인권 주제에 대한 강의를 통해 교직원과 교육 가족의 인권 감수성을 함양시키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후 △10월 20일 영문교육 교수(경희대)의 '한국의 다문화와 인종주의' △11월 24일 장진혁 강사(우암재단 평화강사단)의 '탈북청년으로 산다는 것' 강의를 준비해 있다. /정은성 기자



대구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서거석 교육감이 22일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열린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바다위 특급 호텔 운항사, 전주대에 '리브콜'

'알 시어 마린' 채용설명회 서비스 전문가 채용 절차 진행

바다 위 특급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 운항사인 '알 시어 마린(AL SEER MARINE)'이 지난 21일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아랍에미리트(UAE)의 대형 운항사 '알 시어 마린'은 서인도 제도 케이맨섬을 정유 항해 노선으로 운항하는 초대형 크루즈와 요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알 시어 마린사는 객실 서비스와 식음료 서비스 및 조리 분야를 비롯한 안전 운항을 책임지는 전문가 1,70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직원들은 50개국 다인종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채용설명회에는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 200여 명이 참석해 회사 소개 및 근무 조건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알 시어 마린사 인사 담당자인 첼리 안베리수 씨는 "채용설명회에서 만난 전주대 호텔경영학과 학생들은 이미 정장을 착용하고 이름표를 부착한 모



바다 위 특급 호텔로 불리는 크루즈 운항사인 '알 시어 마린(AL SEER MARINE)'이 지난 21일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를 직접 방문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습부터 프로라는 느낌을 받았고, 영어로 질문하는 모습이 이미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최대한 많은 학생이 지원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문화관광대학 심영국 학장은 "하부대에서 직접 온 것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호텔 산업을 비롯한 크루즈 산업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과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며, 알 시어 마린사도 6개월 인턴십과 1년 정규직, 2년 정규직 등 해외 취업에 대한 넓은 선택 폭을 제시해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호텔경영학과는 이번 취업협약을 체결,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자를 받고 알 시어 마린사와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교육가족 합창단 모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2 전북도교육청 교육가족 합창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 가족에게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예술 활동 경험을 통해 교육 가족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서거석 교육감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교육가족 합창단은 교육청 및 도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육가족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육과 협업체에 관심있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소프라노·알토·테너·베이스 파트 등 60명 내외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0월 7일까지 입단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전북도교육청 인성 건강과) 또는 이메일(jh81@jedu.kr)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모집인원 초과시 발생 테스트 후 선정되며, 발성 테스트 및 정소는 내달 14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가족 합창단은 10월중 단원 모집 입선 후 연습을 시작한다.

주요활동은 스무 1회 이상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 △지역 각종 행사 특별 출연 및 교육 기부 공연 활동 참여 △창단 연주회(예정) 등이다.

/정은성 기자

청·장년 일자리 창출 공유·협업 생태계 구축

우석대 LINC 3.0 사업단, 전북대 등과 협약 체결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가 전북지역 청·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유·협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22일 문화관 5층 화상회의실에서 우석대 LINC 3.0 사업단과 원광대·전북대·전주대 LINC 3.0 사업단·진안군일자리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석 우석대 LINC 3.0 사업단장과 조영삼 원광대

LINC 3.0 사업단장, 방준호 전북대 LINC 3.0 사업단 수석부단장, 주승전 전주대 LINC 3.0 사업단장, 최영규 진안군일자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연계 청·장년 일자리 창출 협력 △지역사회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 진행 △교육·연구·기술 등 정보교류 △인력·시설·설비의 공동 활용 등이다.

/정은성 기자



이종석 단장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자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업무협약 체결 기관들과 일자리 창출과 정보교류 활성화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교기업 제품, 백화점에서

도내 직업계고 학교기업 23~25일 롯데백 전주점 6층서 판매 행사

도내 직업계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기업이 오는 23~25일 3일간 롯데백화점 6층 행사장에서 제품 판매행사를 갖는다

이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됐던 제품 판매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기업은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기업운영을 연계해 아이디어부터 완성제품까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판매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올해로 8번째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군산기계공업고 '우토리', 남원용성고 '나무소리', 한국치즈과학고 '팜트'는 치즈스쿨이 선정 운영 중이다.

한편, 학교 내 유가공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치즈과학고의 학교기업 '팜트'는 치즈스쿨은 미래 치즈명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청정지역 임실군에서 생산된 신선한 원유로 플레인요거트와 치즈 등 고품질 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또 2016년부터 운영된 남원용성



고 학교기업 '나무소리'는 목기로 유명한 지역 특성을 살려 남원 기술명장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품도마와 옷걸이 등 다양한 옷걸이 생활용품품을 제작·판매한다.

앞으로 학생들의 자율목공동아리에서 출발한 군산기계공고 학교기업 '우토리'는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나무를 소재로 '기계공업'이라는 학생들의 전공을 살려 만년필, 수성펜 등 수준 높은 우드펜을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판매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기업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창업능력을 배양하고, 고객의 반응을 확인해 완성도를 높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농어촌 승진가산점 폐지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도교육청 인사제도 개편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옥진)는 22일 전북교육청의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북교육청이 인사제도 전면 개편 추진을 승진가산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농어촌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 업무 수행 능력을 심층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촉구한다"며 "장학사를 승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장학사를 임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전북지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승진 폐지에는 인사순환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실거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보제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는 거리가 먼 항목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에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이 말한 대규모 학교 근무 기회현상, 담임 기피 및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승진가산점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서 농어촌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 업무 수행 능력을 심층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내부형 공모제 확대를 촉구한다"며 "장학사를 승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장학사를 임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 전북지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승진 폐지에는 인사순환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실거주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보제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굿월센터와 협약 체결

유학생 선교사역 위해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22일 대회의실에서 굿월센터와 유학생 선교사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굿월센터의 김중홍 이사장, 윤찬영 목사, 신은경팀장, 정상모 총장, 김미선 교무실장, 조숙진 대외협력보좌관, 이효숙 국제교육원장, 김영선 목사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굿월센터는 2021년 전주 더누리교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정상모 총장은 "유학생들이 한국 문화와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던 중에 굿월센터와 협약을 맺어 기쁘다"며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굿월센터 이사장인 김중홍 목사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의료



체제와 법률적 문제로 한국 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성도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세워진 굿월센터를 통해 앞으로 전주비전대학교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학생 선교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굿월센터는 의료 지원을 비롯해 유학생들과 한국 가정을 이어주는 호스트 패밀리 사업, 한국어, 우크레네 등 20개 가량의 강의를 여는 동아시아역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 선교를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